

## 아버지의 “소”

우리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제 오십이란 나이를 앞두고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인생의 엄한 스승이었다.

아버지는 목수이었다. 농한기에는 오래된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절 또는 교회를 짓기 위해 멀리 일을 떠나셨고, 농번기에만 가끔 오셔서 모내기, 벼 베기 같은 굵직한 일들만 다급히 해놓으시고 다시 떠나셨다. 자연스레 가축 키우는 일, 논이나 밭에 약 치기, 잡초 제거, 땀감 구하기 등의 대부분의 시골 일들은 어머니와 우리들의 몫이었다. 어린 나이에 지게는 무척이나 무거웠고, 곡괭이나 삽으로 땅을 매일같이 파는 것 역시 힘에 겨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논두렁에서 풀을 베고 있으면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부랴부랴 집으로 향해 책가방을 들고 등굣길에 나선다. 10리나 되는 먼 길이지만 나에게서는 자전거가 있었다. 큰형이 타다가 둘째 형에게 물려주고, 둘째 형은 셋째 형에게…。 그렇게 일곱 번째인 나에게까지 왔다. 그리고 당연히 동생에게까지 물려주었다. 아버지는 자식 모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짐을 실을 수 있는 커다란 자전거를 사주셨던 것이다.

밭을 갈았다. 소가 쟁기를 끌고 간다. 아버지는 이라, 자라를 외치며 밭을 갈아엎는다. 산 중턱에 있는 경사진 밭이라 경운기나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오직 소에 의지하여 밭을 다듬고 그곳에 농작물을 심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소를 몰며,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밭을 갈고 있었다.

“아버지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나에게 쟁기를 넘겨주셨다. 쟁기는 무척이나 무거웠고, 소가 앞으로 가자 쟁기는 땅속으로 깊이 박히고 말았다. 온 힘을 다해 위로 들기도 하고, 각도를 조절하여 간신히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랑과 이랑이 아주 엉뚱한 곳으로 파여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고랑을 똑바로 갈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오히려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무엇을 보았느냐?”

“예, 소꼬리를 보았습니다.”

“뿔대를 세워라, 소는 먹을 풀이 있으면 그곳으로 간다. 밭에 물이 고인 곳이나 돌맹이가 있으면 그곳을 피해서 간다. 저 밭 끝에 고랑과의 일정한 거리에 돌이든, 풀이든, 나뭇가지든 그곳을 마음의 뿔대로 정하고 그곳만 바라보고 소를 이끌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뿔대를 보고 밭을 가신 것처럼 아버지의 인생도 정직과 성실이라는 뿔대 하나만 세워놓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

국가의 땅에 세금을 내고 경작하는 논이 있다. 반은 국가 땅이고 반은 우리 땅이었다. 큰비로 인해 독이 모두 휩쓸려가고 말았다. 독을 쌓고 있는데 큰 바위 하나가 독에서 빗겨져 놓여 있었다. 그냥 그 위에 독을 쌓자고 해도 아버지는 끝끝내 그 바위를 옮기셨다. 어린 나이에 융통성이 없다고 구시렁거렸다. 독이 조금 비틀어지면 어떻고,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물의 흐름을 보아라. 물이 이 바위에 부딪히면 어디로 방향을 잡겠느냐? 반대편 독으로 향하게 되어 그 독이 무너진다. 바위를 옮기고 나니 어떠하냐? 물은 자연스레 우리 쪽 독을 타고 흐르지 않느냐?”

그렇게 쌓은 독은 20년이 지나도록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버텼고, 이제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시멘트 블록이 만들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정직과 성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눈은 게으르다. 하지만 손은 부지런하여서 하기 싫어도 시작만 하면 그 일은 할 만하며, 잘되게 되어 있다. 눈으로 보고 머리에서는 ‘힘들 것 같다. 못하겠다. 왜 저것을 내가 해야 하지?’ 고민하게 되지만, 그런 생각 없이 손이 움직이면 일이 되어가고, 그것을 눈이 보면 머리도 인정하여 자연스레 그 일은 더 잘 되어가게 된다. 게으르면 먹지도 말아야 한다. 게으르면 일은 하기 싫어하고 공짜는 좋아하는 법이다. 무엇인가를 편하게만 얻으려고 하니 부정, 부패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 여름에 열심히 벼를 심고, 잡초도 제거하고, 살충제도 뿌려 정성껏 가꾼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자 농부의 희망과 기쁨이 공존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논 가장자리에 위치한 벼의 키가 몹시 작고, 쪽정이가 가득 달려있었다. 같은 논에, 같은 날, 같은 모종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람이 심었는데 어찌하여 어떤 벼는 알곡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어떤 벼는 쪽정이가 빼곡히 달려 있는 것일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나는 옷을 걷어붙이고 논 가장자리로 향했다. 밭이 차가워져 오는 것을 느꼈다. 아주 작은 물줄기가 뽀글뽀글 솟고 있었다. 그 물은 매우 차가웠고, 적은 양이지만 계속 나오니 그 주변에 있는 벼들이 죽거나 쪽정이만 달리게 된 것이었다. 찬물이 논 밖으로 흐르도록 작은 고랑을 내고서야 그다음 해에는 알곡을 거둘 수 있었다.

“너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생활 속에서 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조직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댐의 작은 구멍 하나가 그 댐을 붕괴시키듯이 공무원의 작은 부패는 나라를 멍들게 한다.”

벌써 군무원이 된 지도 26년이 지났다.

근무하고 있는 부대의 장비가 도입한 지 20년이 넘어, 앞으로 정밀도 보장을 위해 외주를 통하여 완전 정비를 해야 한다. 1년에 2~3대의 장비가 정비를 나갔을 때 감독관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출장 신고를 하면 단장님께서 부정부패 방지, 청렴, 철저한 감독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교육을 해주셨다.

단장님께서서는 반드시 일회용 커피 몇 개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온종일 분해된 장비를 점검하고, 제대로 정비를 하는지 감독하는데 커피 한 잔도 먹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모습에 업체의 사장과 직원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정이 없다. 너무한다. 사람 사는 맛이 없다. 이건 아니다……. 커피 한잔이 뭐라고.” 내가 듣고 있어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저어 커피를 안 좋아해서…. 저도 호주머니에 커피가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부대 보고를 위해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회사로 가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 우리 감독관들을 보고 대충 정비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 정품 부품을 교환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정비하는 것을 보았다.

사실 업체는 이익을 남겨야 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중요치 않은 부품은 재생품이나 기존 부품을 세척하여 몰래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감독관들의 완고한 모습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접고, 정석대로 정비하였다고 한다.

나는 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일을 한다.

아버지의 ‘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아버지께서는 밭을 잘 갈기 위해 쫓대를 세웠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소는 그 쫓대를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 한다. 소의 눈에는 주변의 맛있는 풀만 보일 뿐이다. 소가 그 풀에 대한 유혹을 이기게 하려고 새벽 일찍 밭 가에 소를 풀어 주어 마음껏 풀을 먹도록 했던 것이다. 밭을 가는 동안 풀이 생각나지 않도록 말이다. 물이 고인 곳은 흙으로 메워주었고, 돌맹이는 치워 놓았다.

우리는 검사를 하는 동안 친절하게 정성을 다하였다.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장비의 상태, 문제점, 세부 기능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호주머니의 커피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정직이라는 쫓대였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공장자동화 도움을 받기 위해 모 업체에 벤치마킹을 갔다.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침이 마르도록 사장에게 나를 자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은 외주 정비를 보냈던 그곳의 간부였는데, 이곳 간부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장비 정비가 잘되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다. 정직하게 행함은 신뢰를 얻는다. 호주머니에 일회용 커피를 생각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받았다.

아버지의 ‘소’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소를 키울 때 겨울이면 춥지 않도록 바람이 들어가는 곳은 모두 비닐로 막아 준다. 겨울이 되기 전 마구간의 배설물과 거름을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지푸라기를 잔뜩 넣어 준다. 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송아지를 감싸 받아 주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깨끗하게 닦아 준다. 그리고 춥지 않도록 따뜻한 이불을 덮어 준다. 어미 소는 물끄러미 바라보지만,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를 돌봐주는 주인에게 고마움을 가졌을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대할 때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대목(목수의 높임말)으로서 인정받아 인간문화재 추천도 몇 번 받으셨지만 끝내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통해 복원된 문화재들은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슬하에 8명의 자녀를 낳으셨고, 5명의 자녀가 공무원이 되었다. 자연스레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청렴하고 성실하게 공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명의 자녀를 둔 지금에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다.